

2018년 10월 16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실적 둔화 우려 부각되며 하락

애플(-2.14%), 아마존(-1.55%), 실적 둔화 가능성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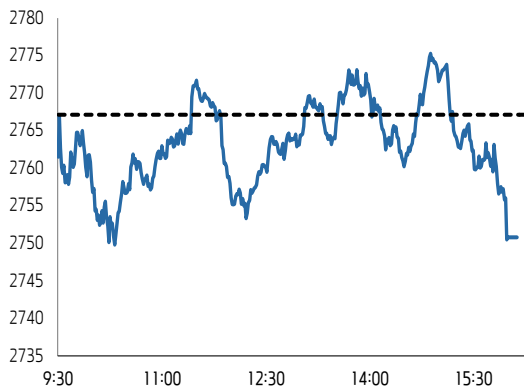
### 실적 가이드선 중요도 높아질 듯

미 증시는 애플(-2.14%)을 비롯한 일부 기술주에 대해 실적 둔화 우려감이 높아진 가운데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마감. 애플은 골드만삭스가 중국에서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위축 될 수 있어 실적 둔화 우려감을 표명. 아마존(-1.55%) 또한 우체국 배송비 인상에 따른 실적 둔화 가능성 제기로 부진을 보이는 등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 다만, 소비 관련주 강세로 낙폭은 제한(다우 -0.35%, 나스닥 -0.88%, S&P500 -0.59%, 러셀 2000 +0.42%)

미 증시는 3 분기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은행들의 실적 프리뷰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등 방향성이 상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S&P500 기업들의 3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1%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 에너지(yoy +93.6%), 금융(yoy +33.7%), 소재(yoy +25.0%) 등이 이를 주도.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3 분기 실적 보다는 미국이 2 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 중국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이후 2019 년 실적 가이드선 변화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최근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론을 비롯한 기업들이 양호한 업황을 언급 했으나, 미-중 무역분쟁을 이유로 가이드선을 하향 조정 하며 부진을 보였던 점에 주목.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관세 발표로 2019 년 S&P500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대 15% 하향 조정 될 수 있다고 주장. 이를 근거로 2019 년 1 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0% 감소하는 등 실적 둔화 가능성 제기. 다만, 중국의 대미 수출물가가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하락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한편,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적에 악영향을 줄 이슈에 대한 조사 결과 임금상승(14.8%), 관세(11.1%) 등 비용관련 내용이 56%나 되며 달러 강세(27.8%) 또한 우려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미국 증시가 국채금리, 달러 강세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 이를 감안 향후 실적 발표시 가이드선 결과와 비용관련 이슈, 달러 변화 등이 미 증시의 방향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0.77	2,145.12	홍콩항셱	25,445.06	-1.38		
KOSDAQ	-1.73	718.87	영국	7,029.22	+0.48		
DOW	-0.35	25,250.55	독일	11,614.16	+0.78		
NASDAQ	-0.88	7,430.74	프랑스	5,095.07	-0.02		
S&P 500	-0.59	2,750.79	스페인	8,923.70	+0.24		
상하이종합	-1.49	2,568.10	그리스	634.47	+0.98		
일본	-1.87	22,271.30	이탈리아	19,287.64	+0.1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기술주 하락

애플(-2.14%)은 골드만삭스가 중국에서의 소비자 수요가 급격히 둔화되는 여러 징후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이슈가 애플의 실적 둔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하자 하락 했다. 특히 하이엔드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는 판매량으로 보면 100만대에 이른다. 다만, 아이폰XS 맥스 플러스 등 대화면 관련 제품의 경우는 여전히 중국에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 했다. 이에 힘입어 스카이웍(-0.18%) 등 부품주는 견조했다

아마존(-1.55%)의 경우는 지난 주 미국 우체국이 2019년 1월 27일부터 운송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바클레이즈는 우체국의 배송비 인상을 감안하면 아마존의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5%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넷플릭스(-1.89%)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골드만삭스와 레이먼드 등이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BOA(-1.90%)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했다. N비디아(-4.53%)는 AI에 대한 성장세가 여전히 있지만, 실적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하락했다. 특히 일부 헤지펀드가 자사의 포트폴리오에서 N비디아를 모두 매각했다고 발표한 점도 부담이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27%	대형 가치주 ETF	-0.10%
에너지섹터 ETF	+0.66%	중형 가치주 ETF	+0.25%
소매업체 ETF	+0.27%	소형 가치주 ETF	+0.66%
금융섹터 ETF	-0.45%	배당주 ETF	-0.03%
기술섹터 ETF	-1.64%	변동성 ETF	+1.44%
소셜 미디어업체 ETF	-0.54%	대형 성장주 ETF	-0.83%
인터넷업체 ETF	-0.75%	중형 성장주 ETF	-0.15%
리츠업체 ETF	+0.62%	소형 성장주 ETF	+0.19%
주택건설업체 ETF	-0.03%	신흥국 고배당 ETF	-0.83%
바이오섹터 ETF	-1.04%	신흥국 저변동성 ETF	-0.48%
헬스케어 ETF	-0.69%	하이일드 ETF	-0.23%
곡물 ETF	+1.20%	물가연동채 ETF	+0.06%
반도체 ETF	-1.09%	Long/short ETF	+0.4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36.08	-0.82%	-6.13%	-1.96%
소재	335.84	-0.48%	-7.03%	-9.89%
산업재	622.84	+0.22%	-6.38%	-5.93%
경기소비재	861.52	-0.47%	-4.01%	-6.04%
필수소비재	542.48	+0.60%	-2.66%	-3.54%
헬스케어	1,045.93	-0.77%	-4.09%	-2.73%
금융	436.93	-0.51%	-6.59%	-6.10%
IT	1,222.77	-1.64%	-4.27%	-5.48%
커뮤니케이션	151.46	-0.43%	-3.36%	-4.63%
유틸리티	269.75	+0.35%	-1.67%	-1.63%
부동산	191.62	+0.51%	-3.68%	-7.5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환율 보고서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1.09% 상승 지수도 1.07%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391 계약) 여파로 0.15pt 하락한 277.7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1.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브렉시트 협상 우려감,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미국-사우디 관계 악화 등이 부각되며 하락 했다. 그러나 밤사이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메이총리가 “북아일랜드 국경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나, 브렉시트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다” 라고 주장한 점은 긍정적이다. 비록 시장이 기대하는 협상 결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18~19 일 있을 EU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안된다면 11 월에 긴급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영국과 EU 는 브렉시트 협상을 위한 조치가 이어진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한편,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악화된다면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한국 증시에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인이 불한당에게 살해됐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주장하자 관련 이슈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해 국왕과 만날 것이라는 소식 또한 관련 이슈 완화 기대감을 높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강보합으로 마감 했다.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미 증시 마감 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 일 미 재무부 관계자들은 중국에 대해 환율 조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감안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은 물론 한국 등 국가들은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또한 긍정적이다. 포함되지 않으면 중국 위안화는 물론 한국 원화 또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허리케인 여파로 미국 소매판매 예상치 하회

미국 9 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시장 전망치(mom +0.7%)를 크게 하회한 결과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식료품 판매가 전월 대비 1.8% 감소하며 소매판매 둔화를 야기 시켰다. 한편, 음식서비스 둔화는 허리케인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관련 지표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 되었다.

미국 8 월 기업재고는 전월 대비 0.55 증가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었다. 한편, 판매대 재고 비율은 전월(1.39개월) 보다 감소한 1.34 개월로 발표돼 향후 재고 증가 기대감을 높였다.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전월(19.0)이나 예상치(18.8) 보다 개선된 21.1 로 발표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상승폭 축소

국제유가는 미국과 사우디 갈등이 부각되며 상승 했다. 다만, 사우디 왕실이 배후가 아닐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폭이 감소했다. 한편, EIA 는 시추생산성 보고서를 통해 세일오일 기업들의 11 월 산유량이 771.4 만 배럴로 전월 보다 9 만 8 천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7 만 9 천배럴) 보다 증가폭이 소폭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 상승폭 축소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소매판매가 예상을 하회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영국의 메리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 타결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보험권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다. 엔화는 므누신 재무장관이 환율 조작에는 예외가 없다고 언급한 이후 달러 대비 강세를 이어갔다. 역외 위안화는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달러 대비 0.2%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여타 신흥국 환율은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소매판매가 예상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뉴욕주 제조업지수가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내놓은 데 힘입어 하락폭은 제한되었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자 향후 수요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약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 가격은 0.78% 하락 했으나, 철근은 0.02%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1.78	+0.62	-3.38	Dollar Index	95.060	-0.17	-0.73
브렌트유	80.78	+0.44	-3.73	EUR/USD	1.1581	+0.18	+0.77
금	1,230.30	+0.68	+3.51	USD/JPY	111.76	-0.40	-1.30
은	14.727	+0.63	+2.78	GBP/USD	1.3154	+0.01	+0.49
알루미늄	2,027.00	-0.69	-1.94	USD/CHF	0.9869	-0.60	-0.57
전기동	6,301.00	-0.02	+1.99	AUD/USD	0.7132	+0.25	+0.76
아연	2,599.00	-1.78	-0.61	USD/CAD	1.2983	-0.31	+0.14
옥수수	378.25	+1.20	+3.21	USD/BRL	3.7357	-1.17	-2.71
밀	525.00	+1.50	+2.14	USD/CNH	6.9237	+0.08	+0.04
대두	891.50	+2.77	+2.50	USD/KRW	1134.30	+0.26	+0.35
커피	119.35	+2.40	+6.71	USD/KRW NDF 1M	1131.25	+0.03	-0.24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154	-0.75	-7.90	스페인	1.677	+0.50	+8.80
한국	2.380	-2.00	-6.50	포르투갈	1.996	-3.90	+3.20
일본	0.144	-0.60	-1.10	그리스	4.368	-1.50	-24.30
독일	0.503	+0.50	-2.60	이탈리아	3.542	-3.10	-2.20